

<2011년 8월 10일 수요일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 변화되고 그에 따라 주님의 대상자가 된다

본 문 마태복음 9장 16-17절

요한복음 1장 10-14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여름철이라서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러 갔을 때는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인솔 책임자는 함께 간 자들을 마치 자기의 어린 아들딸을 관리하고 사랑하는 애인을 관리하듯이 완벽하게 살피기를 바랍니다.

선생은 여름철에 단체로 큰 냇가에 데리고 갔을 때 수영을 잘하는 물개들을 30여 명 배치시켜 놓고 불꽃같이 살피면서 물놀이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관리했습니다. 고로 30년 동안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할 때 사고가 안 났습니다. 예수님 코치를 받고 그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켜 주시니 보호해 주시겠지.’ 하고 자기 책임은 안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만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조심하고 책임자가 잘 인솔해야 됩니다. 자기가 조심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화장실에 갈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주님도 지켜 주시지만 자기 책임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100% 하나님과 예수님의 책임이라면 그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은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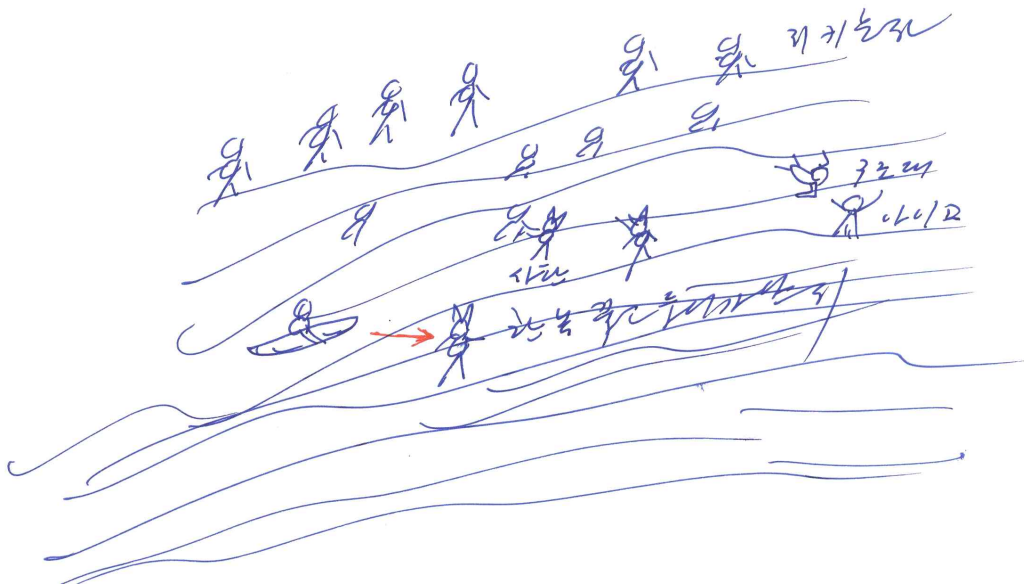
천국에 가는 것도, 지옥에 안 가는 것도 인간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늘의 책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의 100%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90% 정도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머지 10%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인간 책임 10%가 자기에게는 100%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것 한 가지만 하지 말고, 그 한 가지 일을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가령 물놀이를 한다면 물놀이 한 가지만 하지 말고 그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철저히 하라는 말입니다. 사고가 나서 죽으면, 그것은 너무 하찮은 일로 일어납니다. 알고 보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차 조심, 사람 조심, 건강 조심, 말조심 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정말 조심해서 잘 대하기 바랍니다. (아멘.)

<영상1>

① 표현



<자막과 설명> 수영을 하러 갔을 때나 물놀이를 하러 갔을 때는 항상 지키는 자들을 옆에 세워 놓고 철저히 생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귀한 생명을 깊은 물에 끌고 갑니다. 주님도 지켜 주시니 우리도 자기 책임분담을 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② 하나님, 예수님 책임분담 90% + 자기 책임분담 10% = 100%

자기 책임분담 10% = 100% 책임분담

<자막과 설명>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90%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머지 10%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 책임 10%가 자기에게는 100%입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상대에게 원하는 목적에 따라 상대를 보고 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로 인하여 그 말을 듣는 자도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시대마다, 각 교파마다, 각 개인마다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 원하시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각 개인이나 각 교파에 무슨 말씀을 해 주셨는지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사람과 그 교파에 어떤 목적을 두고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의 시대 사명과 위치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종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고로 종들에게는 종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여 그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자녀 입장, 형제 입장의 시대였습니다. 고로 자녀, 형제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믿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는 재림시대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고 맞는 자들에게는 신부와 같은 권세를 주시고 신부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앙으로 믿고 섬기게 하십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종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나 자녀와 형제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나 신부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 시대에 따라 주님이 택하신 목적대로 합당한 자들에게 각각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종의 입장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 입장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부 입장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고 주님은 뜻을 정하사 각각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을 어떤 관계로 대하며 사느냐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 주님의 의향에 의해 결정되고, 또 자기 책임의 의향에 의해 좌우됩니다.

주님은 재림시대에 신부 역사를 펴고 계십니다. 섭리사는 처음부터 신부에 해당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역사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산 자들은 신부 주관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도,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모두 신부 역사 주관권 안의 주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입니다. 그중에서 결혼을 안 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은 더 구분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이 시대 주님의 신부에 해당되는 섭리역사 사람들이지만, 신부 말씀을 들어도 신부 입장으로 살지 못하는 자, 신앙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 타락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자, 이성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섭리역사 신부 주관권 안에 있어도 온전한 신부는 못 됩니다.

신부의 생명은 ‘성결, 청결, 깨끗’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행실’이 깨끗하고, ‘사랑’이 깨끗해야 됩니다.

<영상2>

① 해당 영상

<자막과 설명>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각 교파마다 ‘말씀’이 다릅니다.

<자막>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 그 ‘목적’과 ‘뜻’을 알 수 있다.

②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 자녀 말씀

↓ 신부 말씀

그 영과 육이 자녀로 형성

그 영과 육이 신부로 형성

<자막과 설명> 신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자녀 입장이었습니다. 고로 자녀급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 이 시대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는 재림시대, 신부 시대입니다. 고로 신부급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③ 섭리역사 주관권의 사람들 /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들

<자막과 설명> 섭리역사에 온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신부 입장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섭리역사 신부권 안에 있어도 주님의 온전한 신부라 할 수 없습니다.

④ 해당 영상

<자막과 설명> 신부의 생명은 ‘깨끗함’입니다. ‘마음’과 ‘행실’과 ‘사랑’이 깨끗해야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신부 입장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따먹지 말라는 금단의 과일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루시퍼에게 주고, 아담과 육적인 사랑 관계를 하여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마음을 뺏기고 서로 육체의 쾌감을 느끼며 금단의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에덴동산의 선악과는 사랑의 과일, 즉 금단의 열매였습니다. 아담은 남자이니 생명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깨지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종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위치가 신부 입장에서 종 입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4000년 구약역사는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겨 왔습니다.

4000년 구약역사가 끝나고 후아담 격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들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급 말씀, 형제급 말씀’을 주어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형제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며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2000년 신약역사가 끝나고, 주님은 주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한 차원 높은 단계인 신부 입장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직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신부 입장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땅에서 신부 역사를 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신부로 단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랑으로 맞고 땅에서 재림 역사를 펴다가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주님이 신랑으로 재림하시면 신부로 깨끗이 예비된 자들의 영은 주님을 맞고 휴거되어 하늘나라로 갑니다. 자기 영을 휴거시킨 육은 휴거된 몸으로 땅에서 생을 다할 때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주님을 맞아 휴거되어 하늘나라에 간 영은 땅에 있는 자기 육과 교통하며 육신이 죽을 때까지 하늘과 땅을 왕래합니다. 그러다가 육신이 생을 다하고 죽으면, 육신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혼이 영과 일체 되어 육이 사는 동안 땅에서 세운 공력을 가지고 천국으로 갑니다.

이 시대에 신부 역사는 지구촌에 섭리역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신부 이야기를 하지만 신부 역사는 아닙니다. 신부로 한 역사는 지구촌에 섭리역사밖에 없습니다. 섭리사는 30여 년 전, 역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신부 말씀을 전하며 신부 역사를 펴 왔습니다. 선생은 주님 앞에 이 시대 신부의 조건을 세우기 위해 50년 전부터 사랑의 조건을 세우고 주님께 시대 말씀을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그 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섭리역사는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신부에 해당되는 말씀을 해 왔습니다. 다른 교파는 지나오면서 “신부 교회다. 내가 성령이다.” 말합니다. 신부 이야기를 한다고 그냥 신부 교회가 됩니까? 또 사람 중에서 감히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자를 모독하는 무식한 자들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사역자로 복음을 위해 쓰이는 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자들은 전능자를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보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참기름이라고 하는데 냄새를 맡아 보고 맛을 보면 들기름, 콩기름입니다. 이와 같이 말과 행동을 보면 알고, 말씀을 들어 보면 알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압니다.

또 무조건 신부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예 여자로 성별이 결정되어 태어납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크다가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시작할 때는 자녀권 역사를 하다가 후에 신부 역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남자로 크다가 여자가 됐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성인입니다.

구약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4000년간 종급 역사입니다. 신약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2000년간 자녀급 역사입니다. 성약 신부 역사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1000년간 신부급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처음에 자녀급 역사로 시작했다가 가다가 중간에 신부급 역사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급 역사에 참여하려면 처음부터 신부급으로 역사하는 새 역사로 와야 됩니다.

섭리역사를 빼놓고는 그 어떤 종교도 신약 자녀권에 속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신부’ 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예수님을 보고 ‘신랑’ 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 신부 역사를 이루려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신부 역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다. 고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재림 때부터 완전히 신부

역사를 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집회를 통해 주님께서 부흥강사를 통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 전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1000년 성약 신부 역사가 시작되어 그 역사를 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신약역사가 시작됐을 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신약역사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는 역사를 폈습니다. 결혼식 전부터 결혼식 준비 기간에 들어가듯이, 주님의 재림 전부터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는 역사에 들어갑니다.

역사를 알아야 역사를 펴고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를 100% 알고 가르쳐 줍니다. 역사는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모릅니다. 이는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주님이 시작하지 않으시면 역사를 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3>

① 타락 전 아담과 하와

<하나님 음성> “사랑하는 아담아, 하와야.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둘 다 죽는다.”

② 루시퍼가 하와를 꾀다. / 하와는 루시퍼의 꾀에 넘어가 루시퍼에게 사랑을 빼앗긴다. / 그다음에 하와는 아담에게 간다. / 하와는 아담의 생명나무를 따먹고, 아담은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다.

<자막과 설명>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루시퍼의 꾀에 넘어가 서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따먹고 이성의 쾌감을 느끼고 사랑의 타락을 했습니다.

③ 하나님의 말씀

<자막과 설명>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 “우리가 벗었으므로 여기 숨어 있나이다.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습니다.” /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와를 취하고 너희를 타락하게 한 사탄을 영원히 저주하나, 그가 네 후손들을 괴롭히리라. 하와 너는 해산의

고통을 받을 것이며 나의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을 받으리라. 아담에게도 고통의 고통을 더하리라.”

④ 타락 후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단절됨)

<자막과 설명> 그 후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그 시대 주관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종으로 보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사랑의 타락을 함으로 사랑의 말씀이 끊기고 종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⑤ 해당 영상

<자막과 예수님 말씀> 현재 섭리인들도 들어라. 가정을 가진 자들과 나 예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자들이 그 같은 죄를 지으면 섭리역사에 있으나 종의 몸으로 떨어진다. 회개하여 너희 영혼을 구하여라.

⑥	구약	신약	성약
	아담의 범죄로	예수님 아들 조건	신부 조건 세워
	4000년 구약 형벌 기간	2000년 신약역사	1000년 섭리역사 진행 중
	종급 율법 말씀	자녀급 말씀	신부급 말씀

<설명>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신부의 위치에서 종의 입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종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였고, 구약 4000년 동안 인간은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겨 왔습니다. / 4000년 구약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그때부터 자녀급 말씀을 주셨고, 인간은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 2000년 신약역사가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역사의 때가 되었습니다. 땅의 사명자가 주님 앞에 신부의 조건을 세움으로 주님은 한 차원 높은 단계인 신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사랑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직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신부 말씀을 선포하시며 땅에서 신부 역사를 펴 나가십니다.

⑦ 남자로 태어나 남자로 살다가 남자로 죽는다.

여자로 태어나 여자로 살다가 여자로 죽는다.

구약(종) - 신약(자녀) - 성약(신부)

<자막과 설명>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다가 남자로 죽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다가 여자로 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역사도 구약역사는 400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종급 역사입니다. 신약역사는 200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급 역사입니다. 성약역사는 100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신부급 역사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처음부터 신부급 역사로 와야 됩니다.

물은 흘러 내려가지만, 역사는 더 높은 차원을 두고 점진적으로 흘러 올라갑니다. 신약역사는 구약역사보다 차원을 높여 흘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는 성약 신부역사는 주님의 재림을 맞아 최고로 차원을 높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전히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 역사는 신부 역사로서 1000년 동안 펴 나갑니다.

구약역사 4000년, 그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을 중심으로 구약역사의 반인 신약역사 2000년,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신약역사의 반인 성약 신부 역사를 1000년 동안 펴 나갑니다.

역사는 전 역사의 동시성으로 흐르되, 차원을 높여 다른 방법으로 펴 나갑니다. 축소해서 말하면 어제보다 오늘은 더 차원 높게 이상적으로 역사를 펴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차원 높게 이상적으로 역사를 펴시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원하시는 뜻을 정녕코 이루고 마십니다.

역사는 ‘어제’ 라는 과거에 못 한 일을 ‘오늘’ 이라는 현재에 하여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 역사를 펴 나갑니다. 또한 ‘내일’ 이라는 미래 역사는 ‘오늘’ 이라는 현재 역사를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 오늘 역사에서 못 한 조건을 세우고 그 주관을 벗어나 새 역사를 펴 나갑니다. 개인도 과거에 주님 앞에 못 한 것이 있으면 현재에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하여 개인 역사를 펴 나갑니다.

주님은 역사를 펴기 위해 쓰는 자에게 역사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

다. 고로 그 시대 역사에 주님께 쓰이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시대 종교 특징과 사명과 이단 종교에 대해 다 압니다.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섭리사에 온 지 5년, 10년, 20년씩 된 자들 중에서도 처음 교회에 왔을 때 확실하게 못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여 시대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 운명이 달리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 으로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을 보면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깨달아지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섭리역사는 때가 되어 하나님과 나 예수가 시작한 새 역사인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가치를 모르는구나. 어찌하여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구시대에 가르치는 나의 말씀과 새 시대에 가르치는 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새 역사 신앙의 세계에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은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최고 이상적인 혜택을 누립니다. 그러나 새 역사의 가치를 모르면 그 혜택과 주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해와 달과 별의 사명이 차이가 나듯, 구시대와 새 시대는 구원의 위치도, 사명의 위치도 표가 나게 다르고 말씀의 차원도 표가 나게 다릅니다.

4000년 동안 쓰고 버린 폐차와 2000년 동안 쓴 고물 차와 새로 나온 신형 차는 생김새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고, 가는 곳도 다릅니다. 4000년 된 고물 차는 이미 폐차되었고, 2000년 된 고물 차는 갈 곳 없다 가서 폐차해야 됩니다. 새 차는 앞으로 1000년 동안 가야 됩니다.

선생도 구역사 기성에 있었으면 개인에서 끝났습니다. 구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세계 역사를 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도 주님도 새 역사에 기대를 거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새 역사의 가치

와 자부심과 긍지를 깨닫고 뛰고 달려야 됩니다.

<영상4>



<역사> 구약

<자막과 설명> (물이 흘러 내려가는 모습) 물은 흘러 내려가고, (위의 도표) 역사는 흘러 올라갑니다.

② 섭리역사 퍼면서 새 노래 부르고 집회하는 모습 (20년 전, 10년 전 : 말씀 전하시는 영상) / 선생님이 함께하며 활동하던 모습

<자막과 설명>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는 성약 신부 역사는 주님의 재림을 맞아 최고로 차원을 높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전히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 역사는 신부 역사로서 1000년 동안 퍼 나갑니다.

③ 과거 역사 현재 역사 미래 역사

어제

오늘

내일

<자막과 설명>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갑니다. 과거는 어제, 현재는 오늘, 미래는 내일과 같습니다. 어제가 끝나면 오늘에 와서 살아야 되고, 오늘이 끝나면 내일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는 자들은 새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경이 되어 과거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행사가 다 끝났는데 기다리고 있는 미련한 자들과 같습니다.

④ <어제, 오늘, 내일 역사 도표> / 해 뜨는 도표

구약 4000년 - 신약 2000년 - 성약 1000년

<자막과 설명> 역사는 전 역사의 동시성으로 흐르되, 차원을 높여 다

른 방법으로 퍼 나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차원 높게 이상적으로 역사를 펴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차원 높게 이상적으로 역사를 펴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원하시는 뜻을 정녕코 이루고 마십니다.

⑤ 4000년 동안 쓴 구약역사 2000년 동안 쓴 신약역사 1000년 동안 쓸 성약역사

구약 폐차

신약 고물 차

성약 신형 차

끌고 간다

밀고 간다

달린다

시속 1km

시속 30km

시속 300km

<자막과 설명> 구약역사는 4000년 동안 이미 쓰고 버린 폐차와 같습니다. 폐차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 신약역사는 2000년 동안 쓴 고물 차와 같습니다. 역시 고물차로도 새 역사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 성약역사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쓸 신형 차와 같습니다. 새 차를 가지고 달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말씀은 주님이 선포하시며 새 역사를 펴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말씀을 따라 섭리역사로 온 자들을 빼놓고서는 모두 이단시켰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막았으니 주님을 모독한 자들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죄의 함정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를 짓고 한 톨이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새 역사를 펴셨을 때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빼놓고 그 시대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이단시켰습니다. 오죽해야 그들의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은 것을 사도들마다 신약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주님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악평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눈먼 지도자들아. 맹인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의인들을 채찍질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더러는 죽이는도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을 죽인 죄로부터 이 시대 의인들을 죽인 죄까지 너희에게 다 돌아가리라.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도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끝내 원치 않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마 23장)”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모르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극적으로 악평하고 비판하고 배척하고 불신하고 죄인시하고 때리고 죽인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도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으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살인자로다(행 7:52).”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성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정이다.” 생각합니다. 역시 소경과 같은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입니다. 성경을 한쪽만 보고 양쪽은 못 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살인자라고 기록한 성경말씀을 못 읽었거나, 읽었어도 새 시대 광명한 말씀을 듣지 못하니 보고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구시대에 있으면 낡고 썩은 옛것만 사용하며 옛 주관권에 갇혀 나오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못 풀면 주님을 못 품니다. 성경을 제대로 못 푸니 주님은 새 시대 새 역사의 혜택을 안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 사

람이 만들어지고 달라지고, 주님과 관계가 달라지고, 구원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현대 신앙인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이 죽어야 만민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퓍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이 예정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몰라서 무지해서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들은 주님을 따라가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어 그 시대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주님이 되고, 아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주님이 된다는 구약의 양면성 예언을 풀지 못하여 몰랐던 것입니다.

현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구약의 양면성 예언을 풀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무식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섭리사 사람들은 제대로 아니 주님의 심정을 받고 새 역사를 펴 나가게 하셨고 시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 핵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영상5>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지금까지 너희 선생을 통해 전초한 말씀이 나 예수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었다.

너희는 너희 선생을 통해 나 예수가 가르친 말씀을 듣고 새 역사로 왔다. 그 말씀은 신부 사명의 말씀이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새 역사로 옴으로 네 육과 영이 나의 신부로 예비되고 만들어지는 조건이 되었다. 모두 완벽하게 만들어라.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중성이 되어서

는 나의 신부가 안 된다. 기성인도 아니고 새 역사인도 아니고, 자녀권도 아니고 신부권도 아니면 신랑으로 오는 나 예수를 제대로 맞지 못한다.

구시대는 나 예수를 맞았어도 시대에 따라 ‘자녀권의 말씀’으로 자녀권에서 나 예수를 믿는다. 섭리역사 너희들은 시대에 따라 ‘신부권의 말씀’으로 나 예수를 신랑으로 맞기 위해 신부로 예비하며 살고 있다. 바라건대 너희는 나의 신부로서 100% 완전히 행하여라. 나의 말씀이 곧 너희를 완전하게 하는 말씀이니, 누구든지 시대 말씀을 듣고 지키면 완전하게 된다.

나 예수는 분류하고 있다. 익은 곡식과 쪽정이를 쪼개고, 양과 염소를 쪼개고, 신부와 자녀와 종급 신앙인들을 쪼개 나가고 있다. 너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고, 꿈으로도 보여 주어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게 될 것이다. 자기가 신부급, 자녀급, 종급 중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더욱 깨닫고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온전하게 하여라.

이 시대 나의 신부들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행하자. 말씀을 듣고 행해야 변화되어 신부로 빛이 난다. 나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나의 말을 듣는 내용에 따라 너희 영과 육이 신부로, 혹은 자녀로, 혹은 종으로 형성된다. 내가 신부로 기르는 자들에게는 신부에 해당되는 합당한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신부로 성장하게 한다.

너희를 사랑하는 주 예수다.

<영상6>

①

예수님

(좌)

(우)

종

자녀

자녀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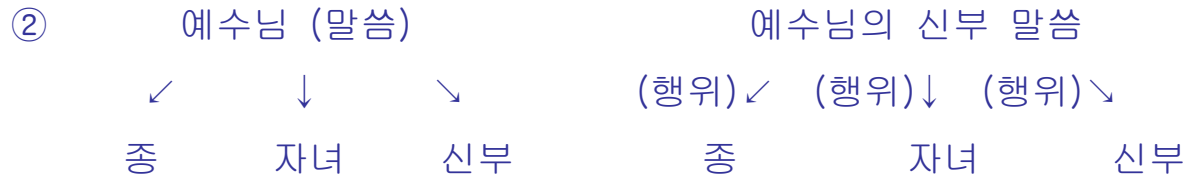
염소

양

쪽정이

알곡

<자막과 말씀> 나 예수는 종과 자녀를 쪼개고, 자녀와 신부를 쪼개고, 염소와 양을 쪼개고, 쪽정이와 알곡을 쪼개 나간다.



<자막과 말씀> 나 예수가 말씀하는 내용에 따라 신부로, 혹은 자녀로, 혹은 종으로 결정된다. 또한 너희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신부로, 혹은 자녀로, 혹은 종으로 결정된다.

③ 예수님 인사

<자막과 말씀>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이 시대 너희에게 주는 신부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변화를 이루자. 살롬.

<자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 변화되고,
그에 따라 주님의 대상자가 된다.